

포천소식

전철 7호선 역세권 교통·주거·비즈니스 어우러진 콤팩트시티로 개발 (상업지구) (압축도시)

23년 착공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다

27년 완공목표

日 도야마시 모델 짧음의 도시로 재탄생

포천시가 추진하는 전철 7호선 역세권은 교통과 주거, 첨단산업 비즈니스센터가 함께 어우러진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중심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지난해 1월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 이후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고, 20년 4월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8월에는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전철역사 위치와 그에 따른 비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12월 경기도는 21년 3월까지 국토부 기본 계획 승인을 받은 후 2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 착공, 28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이 전철 사업은 양주 고읍과 옥정, 소흘, 대진대, 포천을 잇는 17.45Km로 국비 6307억과 도비 1351억, 포천시비 1092억, 양주시비 260억, LH 2752억 등 총 1조 1,762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 2조7593억의 지역 생산 유발효과는 물론 3,195억 원의 임금 유발효과, 1만 7,7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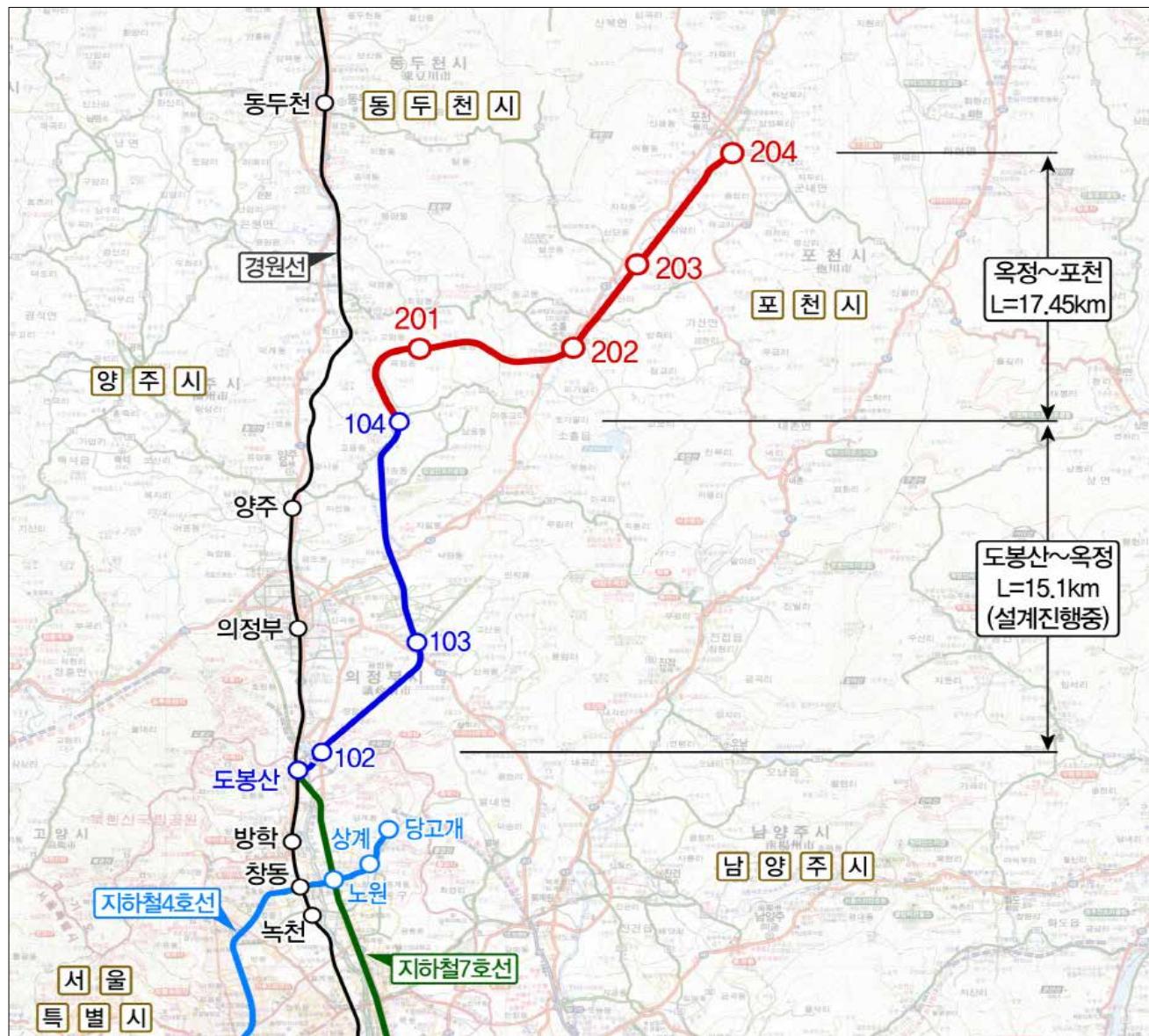
또한, 포천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호전돼 중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물론 관광객과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천시는 소흘과 대진대, 포천 3개 역세권 개발은 교통과 주거, 비즈니스센터 등을 집약시키는 콤팩트 시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흘역은 주거 중심으로, 대진대역은 첨단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산학연계 연구단지를, 포천역은 플랫폼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도야마시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도시 다시 만들기’ 개념을 도입, 포천시를 짧음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역세권에 주거단지와 비즈니스센터 등을 조성하고,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 버스 환승이 가능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을 포천의 주요 산업단지와 교통인프라를 연결, 근로자 교통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기업체들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포천시는 아울러 향후 전철 7호선을 철원-나진-선봉을 잇는 제2의 경원선 철도망 구축 방안과 전철 4호선 내촌 연결 등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모색하고 있다. 기지창 제공을 전제로



▲포천시는 이 같은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오는 27년 전철 7호선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TX 포천노선 연장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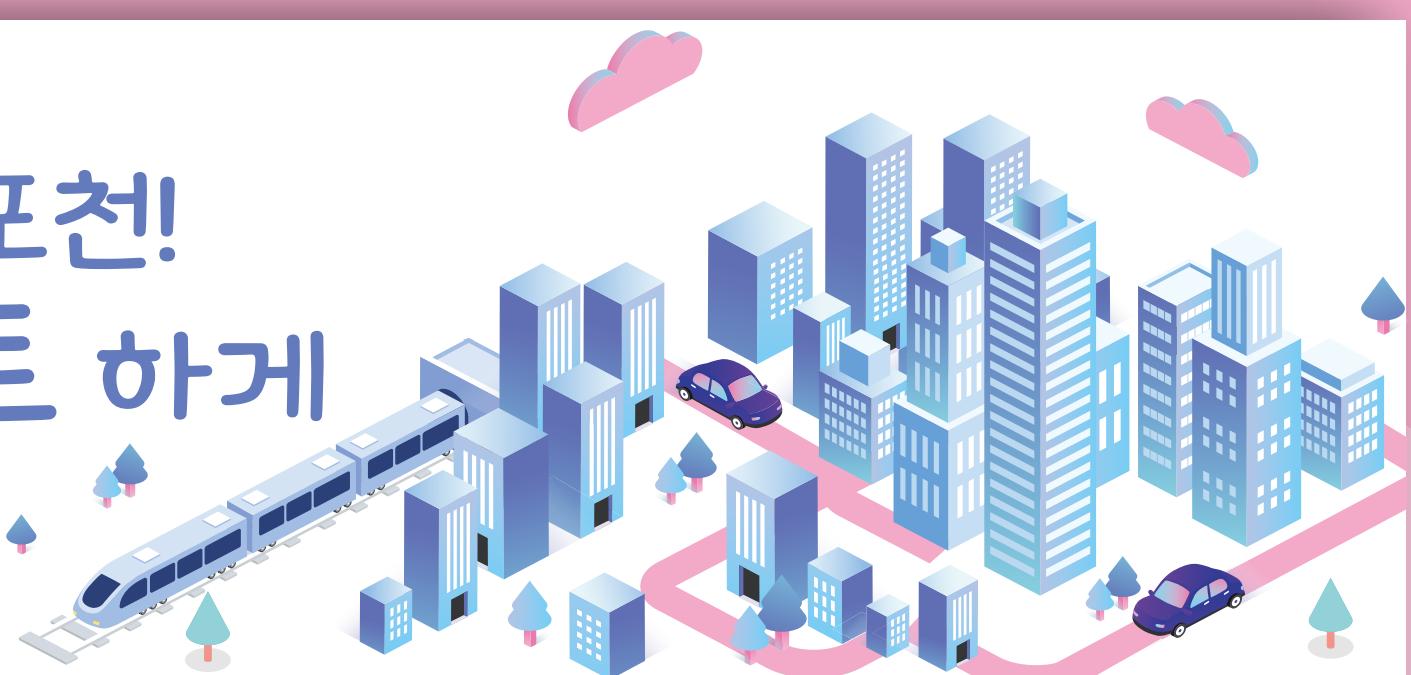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고심하던 도야마시는 콤팩트시티 도입 이후 10년 만에 인구가 29.7%가 증가했다. 죽어가는 도시를 집적화해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시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으로 짧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바뀌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방 도시의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 콤팩트시티를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한 포천! 더, 콤팩트 하게

콤팩트시티 포천



포천 한탄강 세계평화 페스티벌 8월 14일 개막

평화염원 담아 희망 통합 메시지 전달



▲ 포천시는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한탄강 세계평화 페스티벌을 개최, 한탄강을 새로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평화의 염원을 표현하고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천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도시다. 특히 지질생태의 보고라고 불리는 한탄강은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힌다.

한탄강은 '큰 여울'이라는 뜻으

로, 강물이 은하수처럼 길고 넓다 하여 은하수 한(漢), 급경사를 휘감고 돈다고 해서 여울 탄(灘) 글자를 써서 '한탄강'이라고 불린다. 북한 평강 지역에서 발원해 남

쪽으로는 140km를 흐르는 한탄강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 하천으로, 내륙에서는 보기 힘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남한지역 유역은 80km에 달하며 이 중 포천시를 흐르는 한탄강은 40km로 가장 길다. 선캄브리아시대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등 다양한 암석이 분포하고, 주상절리 협곡, 폭포, 하식동굴 등 다채로운 지질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한탄강은 지질학적 가치와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 지난 2015년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앞두고 있다.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2020 한탄강 세계평화 페스티벌(Fortune Valley Festival)'이 개최된다.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한탄강을 새로운 문

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평화의 염원을 표현하고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장한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는 3월 경기도 공립 1종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지질교육의 산실로서 자리매김 중인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는 지질공원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전문 박물관으로, 한탄강의 역사부터 고고, 지질, 생태, 문화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은 지질관, 지질문화관, 지질공원관 등 총 3개의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4D라이딩 영상관, 생태체험관, 수장고, 기획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질공원 해설사와 체험 강사를 배치해 전시관 해설은 물론 지질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년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탄강의 중심에 있는 지질공원센터는 유네스

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지질생태의 거점센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탄강은 2010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수한 자연경관이 원형 그대로 잘 보전되어 있다.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 수달, 원앙, 황조롱이 등이 살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두루미, 삵, 구렁이, 맹꽁이도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돌단풍과 삼지구엽초를 비롯해 철쭉과 한탄강 유역에 자생하는 포천구절초 등 독특한 식물과 꽃도 볼 수 있다.

각각색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을 보이는 포천 한탄강 지질명소는 비둘기낭 폭포,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대교천 현무암 협곡, 화적연, 명우리 협곡, 교동가마소, 고남산 자철석 광산, 지장산 응회암, 구라이골, 백운계곡과 단층, 포천아트밸리와 포천석 등 총 11곳이다.

수도권 최대 관광지 산정호수 새로운 야간 명소로 발돋움

4억 투입 호수 조명과 바닥조명 설치로 화려한 야경 밝힐 예정



▲ 포천시는 산정호수 야간명소화 사업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산정호수 둘레길과 진입로 등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최대 관광지 산정호수 국민관광지가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산정호수 야간 명소화 사업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산정호수 둘레길과 진입로 등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야간 즐길거리 마련을 위해 공연과 축제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도 구축할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포천시는 지난 19일 한화리조트에서 산정호수 야간명소화 사업 경관조명 디자인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포천시의원,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 상가 번영회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천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아치조형물 설치와 바닥조명 설치, 호수 집중 조명설치 등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산정호수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제안사를 우선 협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산정호수는 지난 1977년 국민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연간 170만 명이 찾는 포천시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이다. 산속 저수지라는 뜻에서 산정호수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풍광이 화려한 명성산과 어우러져 경치가 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2020 백운계곡 여름축제

PROGRAM

- 백운계곡 공공테이블
- 물놀이용품 무료대여
- 찾아가는 계곡 버스킹
- 착한 소비 캠페인
- 백운계곡 풀리마켓
- 자릿세 없는 청정 백운계곡
- 튜브·어린이 족대낚시·다슬기체험
- 백운계곡 소규모 버스킹 공연
- 지역소비 활성화 이벤트
- 지역민과 함께하는 풀리마켓

**2020
07. 10 Fri
I
07. 26 Sun**

20년 숙원 수원산 터널공사 2025년 완공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연결 접근성 물류비용 절감 효과 기대

포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수원산 터널(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전망이다. 특히 사업 추진 20여년 만에 그 결실을 맷게 됐다.

포천시에 따르면 수원산 터널 사업은 사실상 설계가 마무리된 단계로, 연내 보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1천 5억 원이 들어간다. 사업은 포천 군내면 직두리와 내촌면 신팔리 5.5km를 잇는 왕복 2차선 도로를 건설하는데 수원산에 터널을 뚫어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13일 ‘군내~내촌(수원산터널)도로건설공사’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와 연계돼 교통정체 해소와 국도 43·374·7호선과의 접근성 향상, 교통사고 위험 감소, 특히 물류 운송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원산 고갯길을 넘는데 걸리는 시간이 18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새로 건설되는 노선을 이용 할 경우 약 12분 정도의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 현재 교통량 1일 8,278대 (2019년, 12월 기준)에서 완공이 되면 8.12% 늘어난 8951대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수원산 고갯길은 지방도 387호선 가평 불기고개와 포천 군내면을 잇는 국지도 56호로 이 도로의 전체 길이는 3km 정도다. 하

지만 산을 넘어가야 하는 위험한 길은 심한 경사도는 물론 도로가 구부러져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용률이 저조하다.

특히 심하게 구불구불한 구간이 20%에 경사도 또한 10~17%의 급 경사지가 34%에 달해 눈이 3cm만 내려도 통행조차 할 수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같은 불편 때문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은 바로 수원산 터널 개통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사업은 20여 년간 여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지부진한 사업에 뛰난 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6년 12월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했지만, 이번엔 수원산 터널 공사 구간에 위치한 탄약고 8곳의 이전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물꼬가 터진 것은 민선7기 들어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018년 8월 민원현장을 방문해 ‘포천시의 숙원인 만큼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9월부터 다시 설계에 들어가는 등 다시 탄력을 받았다.

이에 박윤국 포천시장도 취임 직후 포천의 현안 사업 중 특히 군내~내촌(수원산터널)건설사업에 줄 곳 총력을 펼쳐왔다.

박윤국 시장은 “수원산 터널은 화현면 등 포천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교통사고 위험 감소와 물류 운송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며 심혈을 기울여 왔다.



▲ 포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원산터널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 25년 완공될 것으로 보여 포천 중심권 도시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임영웅 해외팬 클럽, 고향 포천에 노인성금 400만 원 기탁

포천시 홍보대사 임영웅을 응원하는 해외 팬클럽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400만 원을 임영웅의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포천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여한 영웅시대 회원은 “어려운 시기에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며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며 “이번 선행으로 임영웅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소중한 성금을 기탁하여 주신 임영웅 팬클럽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포천의 아들 임영웅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탁받은 성금을 3개 수행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허로 계신 노인맞춤돌봄대상자를 위해 ‘생필품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에 맞닿습니다.

포천 한반도 물류와
교통의 중심

고속도로에서 전철로, 다시 민간공항의 꿈으로 시민의
의지와 열망을 모아 힘찬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박윤국 포천시장, 포천상공회의소 간담회서 “이젠 경제활성화”



▲ 박윤국 포천시장은 19일 우정식품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임원진과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내 소스류 최강 백호식품 해외시장 개척

김웅기 회장, 뚝심과 열정 창의 마인드로 굴지의 식품회사 키워내



천에서 생산된 식품을 어떻게 하면 넓은 시장에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포천에는 360여 개의 식품제조업체가 있다. 이 중 자체 상표로 유통하는 규모가 되는 기업은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

김웅기 회장은 이렇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 관내 식품기업들의 제품을 미국 FDA에 직접 등록해 주면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인의 경험을 살려 제품의 품질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당연하게 햄버거, 피자, 후라이드 치킨의 소스를 무심코 먹는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감칠맛이 나는 소스는 누가 만들까 하는 생각은 해보았는가? 으레 ‘햄버거 회사나 치킨 회사에서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소스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들어간 기술집약적 식품의 결정판이기 때문이다.

높은 기술력으로 식품업계에서 명성을 누리고 있는 곳이 우리 포천시 선단동에 있다. 바로 백호식품이다. 지난 198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백호식품은 소스류와 조미식품의 강자다. 음식의 맛을 살리고,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역할을 하는 소스와 조미식품은 백호식품의 주력 제품이다.

백호식품의 김웅기 회장은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식품시장에서 뚝심과 열정, 창의적인 마인드로 백호식품을 연 매출 120억 원의 굴지의 식품회사로 키워냈다.

백호유통은 현재 식품 관련 상품을 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식품외 생필품도 수출하기 시작했고, 금년도 300억 매출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천의 여러 식품 제조업체의 생산품도 미국과 동남아시아, 일본 등에 수출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필품이 부족한 미국에는 한국산 식품 외에 생활용품도 수출하는 등 활발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김웅기 회장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새롭게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한다. 포천시 식품제조업체의 회장을 6년째 역임하며 항상 고민했던 것도 바로 ‘포

그는 포천 식품업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년전부터 관내에 식품클러스트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품관련 연구, 시험, 유통, 물류, 제조 등의 시설이 한 단지에 조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포천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 제약조건과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 포천의 먹거리를 위해 이 클러스트 산업단지 조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무한경쟁의 시대라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산업으로 식품업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기술개발과 판로 개척이라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김웅기 회장은 생각이다. 그의 말대로 앞으로 식품업계는 더 치열한 경쟁의 무대로 바뀔 것이다. 그만큼 지금의 시기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의 혜안이 놀랍다.

코로나19 이후 기업 어려움 감안 관련법 적용 탄력적 적용 주문도

포천시는 포천상공회의소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논의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9일 우정식품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임원진과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21일 용정산단 내 육가공업체인 (주)오뗄을 찾아 구인난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포천시 행정 방향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등 방역에 연인원 10만 명이 나선 상황에서 올 1월 코로나19까지 발병했다.”고 말하며 “지역경제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준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겪은 어

려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세계가 코로나 이후 새롭게 바뀌는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 지자체와 국가와 세계 각국이 전염병에 대한 사전 대처방안이 준비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서도 박 시장은 포천시 공무원들의 관련법 적용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 규제 강화 행정보다는 기업과의 동반자, 파트너 입장에서 관련법 탄력적 운영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강화된 환경법 적용부터 지방세 유예조치, 공업용수 문제 등 기업애로 사항을 제시했다.

포천시와 포천상공회의소는 구체적인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조만간 분야별 2차 실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포천시 주요 일자리 정보

모집요강 / 운전직

(2020. 6. 1. 기준)

업체명	소재지	모집분야	급여	형태	연락처
서우실업(주)	창수면	배송납품운전원	연봉 2,800만원	주 5일	536-3074
(주)텐데이즈	가산면	경소형화물차운전원	월급 220만원	주 5일	070-7842-7605

모집요강 / 생산직

업체명	소재지	모집분야	급여	형태	연락처
주식회사 딩동펫	동교동	쇼핑몰택배준비원	일급 75,156원	주 6일	070-4323-6507
두진산업	가산면	가구제조수리원	시급 8,590원	주 5일	541-6303
(주)명성프라콘	영종면	제조단순종사원	월급 200만원	주 5일	531-7759
루디아	창수면	섬유가공준비및처리원	월급 190만원	주 5일	544-9692
(주)신우	신북면	제조단순종사원	월급 240만원	주 6일	02-417-2582
덕우케미칼	가산면	제조단순종사원	시급 8,590원	주 5일	543-4416
(주)서재	소흘읍	섬유가공준비및처리원	월급 210만원	주 5일	544-6200
우진공업	화현면	제조단순종사원	시급 8,590원	주 5일	534-3731

모집요강 / 사무직

업체명	소재지	모집분야	급여	형태	연락처
(주)에스알펜스터	군내면	영업기획관리사무원	연봉 2,500만원	주 5일	070-7437-7089
올림픽산업	소흘읍	영업기획관리사무원	월급 179만원	주 5일	837-6869
(주)오토프로	가산면	경리사무원	월급 180만원	주 5일	541-1487

모집요강 / 기타직

업체명	소재지	모집분야	급여	형태	연락처
(주)이현에너지	신북면	건물청소원	월급 180만원	주 6일	533-7835
에스엔지시스템	가산면	CCTV설치수리원	연봉 2,500만원	주 5일	070-7717-7080
주식회사케이컴퍼니	가산면	광고디자이너	월급 180만원	주 5일	543-8459
신흥정밀	소흘읍	캐드원	월급 180만원	주 5일	544-8589
포천남부요양원	소흘읍	사회복지사	월급 190만원	주 5일	544-5300
(주)소르니아	가산면	콜센터상담원	월급 180만원	주 5일	535-2290
케이엔엘서플라이코리아	가산면	오토바이정비원	월급 190만원	주 5일	543-3357

포천일자리센터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34번길 8(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031-538-3115/2291~3

숲이 어우러진 태봉공원 624세대 아파트 본격 추진 전망

46년만에 시민의 품으로...민간특례 공원으로 조성



▲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조감도

포천시가 추진 중인 소흘읍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7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지 46년 만이다.

태봉공원은 1974년에 공원 지정된 후 시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원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올해 7월 1일자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과 주거환경에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포천시는 2018년부터 민간사업

제안공모를 진행, 각종 심의와 관련기관 부서 간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고, 인근 아파트주민들과 사업자간의 갈등도 해소됐다.

이에 시는 사업자와의 긴 협상을 통해 공원 내 공동주택 부지 및 규모를 당초(70/30)보다 축소하고 공원 부지를 최대 확보하는 성과를 끌어내며, 주변 아파트 등의 '일조·조망권' 등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사업의 총면적

15만9607m² 중 78%인 12만5282m²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 22%인 3만4325m²에는 공동주택 624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12만 5282m²의 녹지공간을 지키게 됐고, 4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야받은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게 됐다.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은 총사업비 2020억이 들어가며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 15만

9607m²의 22%인 3만4325m²에 아파트 20층 624세대를 건축하고 수익금으로 나머지 78% 12만5282m²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다.

향후 조성될 공원에는 소흘읍 내부족한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수영장, 카페형 어린이도서관, 청년활동공간,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카페, 숲체험시설로 구성할 예정이다.

도심형 수목원을 모티브로 잔디광장과 힐링산책로, 쉼터, 정원 등을 조성해 시민에게 공연, 휴식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포천시 예산절감과 재정확충의 효과는 물론이고 문화·체육·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정 작가

네 꿈을 마음껏 그려보렵!

꿈을 스케치하는
아이들과 함께
윤수정 작가



포천시 소흘읍에 봇과 물감으로 회색빛 벽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화가가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서양화가이자 윤스갤러리 대표 윤수정 작가다.

지난 5월 초, 포천 신북작은도서관 벽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어 화제가 됐다. 포천시 평생학습센터의 미술벽화 동아리 '예쁘담'의 회장이기도 한 윤수정 작가는 예쁘담과 힐링원예, 해뜰캘리그라피 등 3개 평생학습동아리와 함께 벽화를 그리고 화단을 꾸며 지역주민을 감동케 했다. 신북작은도

서관은 골목 한쪽에 위치한데다 전체적으로 회색빛이라 다소 어두운 분위기였으나 꽃과 나비가 가득한 화사한 벽화와 꽃밭으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포천을 그리다

셉 테드(CPTED)라 불리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은 도시환경 설계 시, 범죄를 합부로 저지를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골목이나 낙후지역에 긍정적인 느낌의 밝은 벽화를 그려 미적 효과 뿐 아니라 각종 범죄 감소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전 세계 곳곳에서 넓게 활용되고 있다. 윤수정 작가는 호주 유학 시절 도시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보고 그 효과와 표현의 자유로움에 매료당해 벽

화 그리기 봉사에 뛰어들었다. 이번에 그린 신북작은도서관 벽화뿐 아니라 경기도 학생교육원 포천학생 야영장의 벽화 역시 윤 작가가 학생들과 봉사활동으로 만들어낸 셉테드 작품이다.

벽화조성의 모든 과정과 활동은 재능기부다. 별도의 사익이 생기는 것도 전혀 없다. 그렇지만 윤 작가는 재능을 나누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현재 나의 봉사활동은 언젠가 내 아이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포천 아이들을 더욱 자신있게, 더욱 행복하게

윤수정 작가는 청소년 미술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윤 작가는 2016년 포천에 정착

후 연을 맺게 된 한사랑교육공동체와 함께 경기꿈의학교 '드림스 케치'에서 4년째 학생 미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제8회 대한민국 무궁화 미술대전에서 12명의 학생들이 교육부장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등 각종 상을 휩쓸기도 했다.

'퍼포먼스 페인터즈'도 윤 작가가 경기꿈의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미술교육이다. 공연형식의 미술이라 처음에는 낯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직접 공연을 해본 뒤로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윤작가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포천 아이들은 성적만 높이는 아이들이 아닌,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37억8천 투입된 포천노인회관 11월 완공 예정

급속한 노령화 현상 대비 노인여가 활동 등 노인 삶 증진 기여

2018년 기준 포천 노인인구는 26,306명으로 전체인구인 150,676 명의 17.5%이다.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 노인인구 비율은 14.8%이며 경기도는 11.9%이다. 최근 5년 간 포천의 전체 인구는 감소세에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연령별 포천 인구는 50~59 세 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조만간 노인인구 비율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노령화 현상은 사회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문제는 노인빈곤과 노인고독과 소외, 경제적 부담, 건강상의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제활동 인구보다 노인이 많아지면 사회적인 부담이 늘어 조세부담과 의료 체계, 돌봄 체계 등에도 부하가 걸릴 수 있다.

포천시는 이런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회관 건립에 나섰다. 박윤국 포천시장 취임 후 시



▲ 오는 11월 신읍동 229-1번지 일대에 완공예정인 포천노인회관 조감도

작된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포천병원 건너편(신읍동 229-1번지) 면적 998m², 지상 3층 규모로 37억 8천만 원이 투입, 11월 완공 예정이다.

노인회관이 건립되면 현재 신읍동의 대한노인회 포천지회 건물에

입주한 노인대학이나 대학원도 새로 조성되는 개선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취업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노인 관련 조사, 연구사업과 지역에서의 교류

등도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유대강화와 사회적 기원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는 장기 요양보험에 의한 치료목적 돌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노령인구 증가를 통해 우리 지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유대강화와 사회적 기원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삶의 영위’이다.

1만 포천장애인 자립생활 선도 -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경

을 선도하고 있다.

송기태 센터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고 했다.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루는 게 목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처럼 사회의 수많은 소외계층과 약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권리침해 구제, 동료상담, 장애인한글교실, 보장구 수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해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교육과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체험홈’이 있다. 체험홈은 하루 종일 집단으로 생활하는 생활시설에서 나와 본격적인 사회로의 복귀를 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머무는 곳이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

지 않다. 이들도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체로 삶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영위하기 바란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시설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이들에게 많은 핸디캡을 주고 있어,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송기태 센터장은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 중증 장애인 취업을 위해 장애인 배드민턴 생활체육인 11명이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기업에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이 생활체육시설에서 운동과 취업활동을 있는 시스템이다. 일주일에 4회, 하루 4시간 30분 운동하는 것으로,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는다.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신북면 삼성당리에 있는 ‘푸른꿈 블루베리’ 농장이다. 약 991m² 평 규모의 이 농장은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한다. 본인이 지체장애인인가 도 한 송기태 센터장이 지난 2015년 지적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조성한 농장으로 정성으로 수확한 블루베리를 판매 수익금은 이 농장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지급된다. 장애인 스스로 수입을 얻는 시스템으로 자생적인 순환구조의 일자리 창출인 셈이다.

송기태 센터장은 블루베리 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도 포천시 산림조합을 연계하고 있다. 앞으로 연중 상시 할 수 있는 블루베리 열매 가공·판매 사업도 계획 중이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참여를 의미한다.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 와롭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많은 격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책 읽는 도시 포천, 전국 독후감 공모전 연다



포천시립도서관은 포천시민이 함께 읽을 ‘2020 올해의 책’을 최종 선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한다.

올해의 책은 한 권의 책으로 시민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지역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자료관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총 4권이 선정됐다.

‘독후감 공모전’은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포천의 명현인 오성과 한음도시 포천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국 규모 공모전이다.

독후감 대상 도서는 포천시 2020 올해의 책 선정도서, 《당신이 옳다》 정혜신 저(일반), 《페인트》 이희영 저(청소년), 《신통방통 흡쇼핑》 이분희 저(초등고), 《나는 개다》 백희나 저(초등저) 4권과 오성과 한음 관련 도서 1권으로 총 5권이다.

독후감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

응모 분야는 8개 부문(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부, 성인부, 군인부, 노인부, 다문화부, 가족부)으로 초·중·고등학생, 성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방문·우편·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9월 중 발표 예정이며, 각 부문별 최우수·우수·장려상 등 총 76명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문화상품권, 포천사랑 상품권)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및 포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pocheon.go.kr) 또는 포천시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팀(☎ 031-538-3922)에서 알아볼 수 있다.

▲ 포천장애인자립센터 송기태 센터장

2020년 2월 기준 포천시 등록 장애인은 10,079명으로 전체 시민 중 약 7%에 해당된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불편은 행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지만, 정작 더 큰 걸림돌은 자립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 한다.

신북면 신북초등학교 앞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송기태)는 장애인들의 등대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대 초반 장애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국적으로 200여 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연대로 장애인 인권 확보와 자립생활 실천

포스트 코로나 포천 지역사회 명품교육 도시 만들기 시동

포천시교육재단 출범 후 21개 기업·단체 장학 기금 기탁 줄이어

정주권 도시 조성 역할 한 둇 인구 유입 작용 전망도

국가적 재난상황인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포천 지역사회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 기금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월 7일 주식회사 에이엠글러벌의 5백만원을 시작으로 최근 5월 7일 (유)도성개발의 1천만원까지 총 21개 기업·단체에서 1억8,2백만원의 장학 기금을 (재)포천교육재단에 기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미래의 희망에게 투자하여 포천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면 미래를 바라보고 포천 교육 발전에 초석을 놓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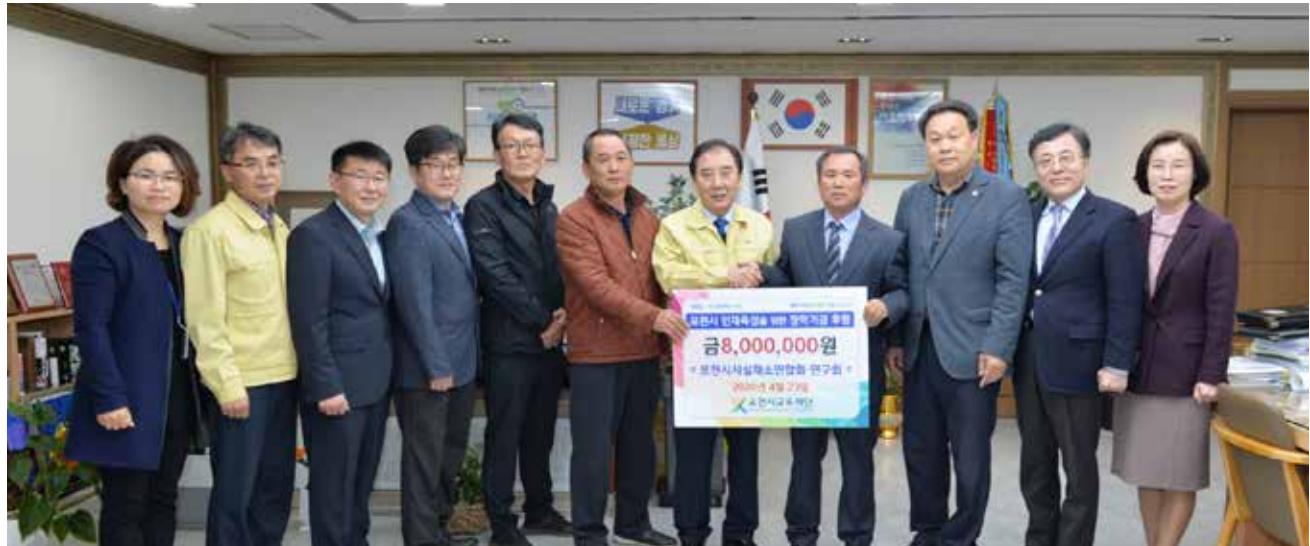
박윤국 포천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천을 교육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녀 교육

을 위해 포천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 표현이다. 또한 아로부터 어르신을 포함한 포천 시민을 위한 전 생애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표명한 바 있다.

(재)포천시교육재단의 사업 영역 확대는 포천 인구 감소 대책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 사업 확대는 포천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대학 진학율을 높여, 포천을 정주권 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다.

(재)포천시교육재단은 2020년 1월 정식 출범 이후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대학생과 향토인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초·중·고등학생과 우수 교원 등 총 460여명에게 3억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추진하지



▲ 포천지역사회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과 단체의 장학기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못하고 있는 시민 제안 교육 지원 사업 등의 장학금 지급 이외의 교육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이와 함께 포천시는 포천 인구 정책과 함께 명품교육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까지와는 다르게 변화를 계속 추구할 계획이다.

한 기업인은 “새롭게 출범한 (재)포천교육재단이 추진 중인 많은 교육 사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장학 기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1회성 후원이 아닌 포천교육 발전을 위해 매년 후원하여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학 기금을 기탁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장학 기금을 디딤돌로 포천의 공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명품도시 포천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혁신교육지구, 온 시민이 다(多)함께, 포천미래 혁신

포통포통 천 가지 빛깔의 꿈을 펼친다!!



▲ 포천교육지원청은 학생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공교육 혁신 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춘보)은 학생들의 배움이 교실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학생중심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 교육공동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지향하는 포천혁신교육지구를 운영중이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포천혁신교육지구는 2019년 1월,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 증가 및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마을 - 교육지원청 - 학교 간 상생, 지역과 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포천혁신교육지구는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과 일원화 및 체계적으로 심화하여 교육 가족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여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온 시민이 다(多)함께, 포천답게 미래로 혁신한다! 포통포통 천 가지 빛깔의 꿈을 펼치다!!!’라는 포천혁신교육 철학을 담아 HAPPY교육을 열어가고 있다.

포천혁신교육지구는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통해 ▶교육

과정 다양화를 통한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기초·기본학력 지원,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강화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지역자원 및 교육과정 연계 버스 지원, 평화통일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 문화예술교실, 소프트웨어 교육 영역 등의 포천 학교 지원 ▶파워에듀 교사 성장 지원, 학생주도 프로젝트, 포천 학생 SMART 미래교육, 학부모 성장 지원, 마을 강사 지원 등 교육공동체 성장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경기꿈의학교, 경기꿈의대학과 방과 후 마을학교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지원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연계 운영과 포천 미래교육의 바탕이 되는 독서인문교육, 문화예술교육, 메이커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기초학력 향상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한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학교와 마을이 넘나들며 배우는 개방, 공유체계 구축 및 배움 공간 확장으로 학교 교육력 향상을 넘어 지역 교육력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의 교육적 요구와 특색을 반영하는 교육 협력 사업을 확장하고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심화에 앞장서고 온 시민이 다(多)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혁신교육 생태계 확장을 통해 지역교육 공동체를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공동체 주관

창의융합 인재양성 학교도서관 조성

포천교육지원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공동체가 소통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2020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도서관 패러다임 확장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과정 지원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지원체계 강화 등의 추진 방향을 통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학교도서관 패러다임 확장 & 교육과정 지원

학교도서관은 정적인 독서공간에서 벗어나 학생·교원·학부모의 소통을 위한 공간, 미래 교육을 위한 창의·체험 교육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책읽기 운동’,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등 학교도서관 공간·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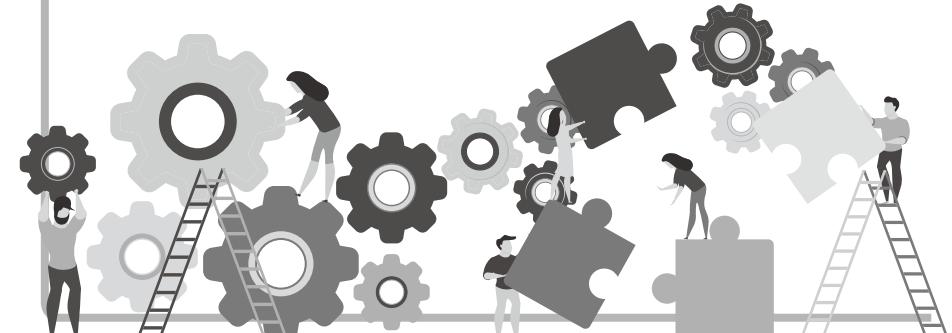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이 2018년도 44%, 2019년도 69%, 2020년 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사서로 구성된 연구회를 구성하여 학교도서관 활용프로그램과 독서자료의 개발·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도서관 지원체계 강화

포천시립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교육도서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도서관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전담인력 미배치교의 1:1 맞춤 컨설팅, 학교별 맞춤 독서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도서관 운영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심춘보 교육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에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이 변화하고 있다]

건강을 생각하는 '메디푸드(Medi-Food) 장터 '포담''



▲ 허당원 이관육 대표(왼쪽)와 항당뇨 식품연구가인 그의 아내 김순옥씨 부부

**건강밥상, 마사지체험,
침뜸 등 소통의 장
시범사업 올해 10농가 진행...
명실공히 '메디푸드 빌리지'**

“여기에서 오시면 건강과 소확행을 찾을 수 있어요.”, “건강한 밥상은 보너스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 서구화와 편리 추구에 따른 활동량 감소, 체중증가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 고혈압, 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으

로 ‘건강한 밥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운데 건강한 농산물 등의 재료를 판매하는 한 농촌 마을의 장터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허당원 (유기농 농장,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길 48-18)에서 열리는 메디푸드 장터 ‘포담’이다. ‘포담’은 ‘포천의 좋은 것 들을 담았다’는 의미를 줄인 말이다.

이곳 허당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제철 건강한 농산물과 항당

‘포담’ 입소문만으로 장날 하루 200만 원 매출... 연매출 1억 원 기록

뇨 고추 등 메디푸드, 산야초와 발효액 등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다.

허당원에서도 올해로 귀농 16년 차인 이관육 대표와 항당뇨 식품 연구가인 아내 김순옥씨 부부가 항당뇨 고추 등 메디푸드를 재배하고 있다.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항당뇨 기능성 고추 ‘원기1호’는 고추와 잎에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AGI(α -glucosidase inhibitor)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저하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함(활성)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반 고추에 비해 고추 잎의 AGI 활성이 4배정도 높고, 고추는 특히 비타민 C가 감귤의 2배, 사과의 30배를 함유하고 있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항균, 항암, 항비만, 항동맥경화, 항통증 등의 생리활성 기능이 있다.

김순옥 식품연구가는 “귀농 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선 산채 등을 공부했고, 건강한 재료를 이용해 소스 등을 10여 년간 개발 해, 허당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항당뇨 고추 등 건강밥상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관육·김순옥씨 부부는

“서로가 나누고 더하고 곱하다 보면 우리가 사는 ‘농촌의 행복지수’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침뜸 등 민간 자격증이 있는 이들 부부는 “봉사가 낙이다”라며 지금도 1주일에 한 번씩 건강봉사를 하고 있다.

메디푸드 장터 ‘포담’의 시작은 이랬다. 지난해 이관육 대표가 이마을 이상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을 도심이 아닌 이곳 농촌에서 팔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이러한 발상은 적중해 지난해 5월 시작된 ‘포담’은 입소문만으로 장날 하루 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연매출 1억 원을 기록했다.

이관육·김순옥씨는 “일본이나 독일의 로컬푸드를 보면, 도심이 아닌 힐링 할 수 있는 시골 마을로 관광객 등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고, 특히 1차 산업인 농업에 2차 가공산업과 3차 서비스업을 더한 6차 산업을 지향하고 있어 전장한 로컬푸드”라며 “메디장터 ‘포담’도 그 가능성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실적 이면에는 이관육·김순옥씨의 애지중지 키운 채소를

포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하면서 배운 쓰라린 경험이 뒷받침이 됐다.

이관육·김순옥씨는 “로컬푸드매장에 수수료 15%를 주고 채소 등을 납품했지만, 하루 지나 시들면 반품을 받아야 하고, 특히 납품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포담’에서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 농민이 만족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이들 부부가 장터에 주안점을 둔 고혈압, 당뇨 등 건강에 좋은 ‘메디푸드’와 장날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밥상’, ‘건강 마사지체험’, ‘침뜸’ 등이 한몫을 했다.

이관육·김순옥씨는 “90대 노인이 나물을 캐고 이곳에서 판매해 돈도 벌고 건강밥상도 먹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며 “즐기면서 노후를 보내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라고 귀띔했다.

이들 부부의 열정을 알아본 포천시가 이와 관련해 올해를 원년으로 삼고 4년차 사업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포천에서도 즐길 수 있는 여신의 과일 패션프루트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고도 불리는 패션프루트(passion fruit)는 브라질 남부 지역이 원산지인 아열대 및 열대 과일이다. 반으로 잘라 과실 속에 가득찬 검은 씨와 젤리 상태의 황금빛 오렌지색 과육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 독특한 향미의 톡 쏘는 신맛과 달콤한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패션프루트는 ‘여신의 과일’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데 ‘여성의 과일’이라고 불리는 석류보다 각종 영양성분이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피로 해소를 돋고 피부미용에 좋은 비타민 C는 3배,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니아신은 5.2배,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돋는 식이섬유는 2.6배나 석류보다 많이 들어있고 칼슘과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도 풍부하다. 게다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유사물질은 5배나 많이 들어 있어서 별명 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패션프루트를 우리 포천지역에서 신선한 생과로 즐기고 싶다면 장바구니를 들고 소흘읍에 위치한 체험농장이나 로컬푸드점에 방문해 보는 것이 어떨까?

북부지역에서 패션프루트 재배가 가능한지, 새소득원으로서의 가능성과 가치가 있는지를 구명하기 위해 포천시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농가가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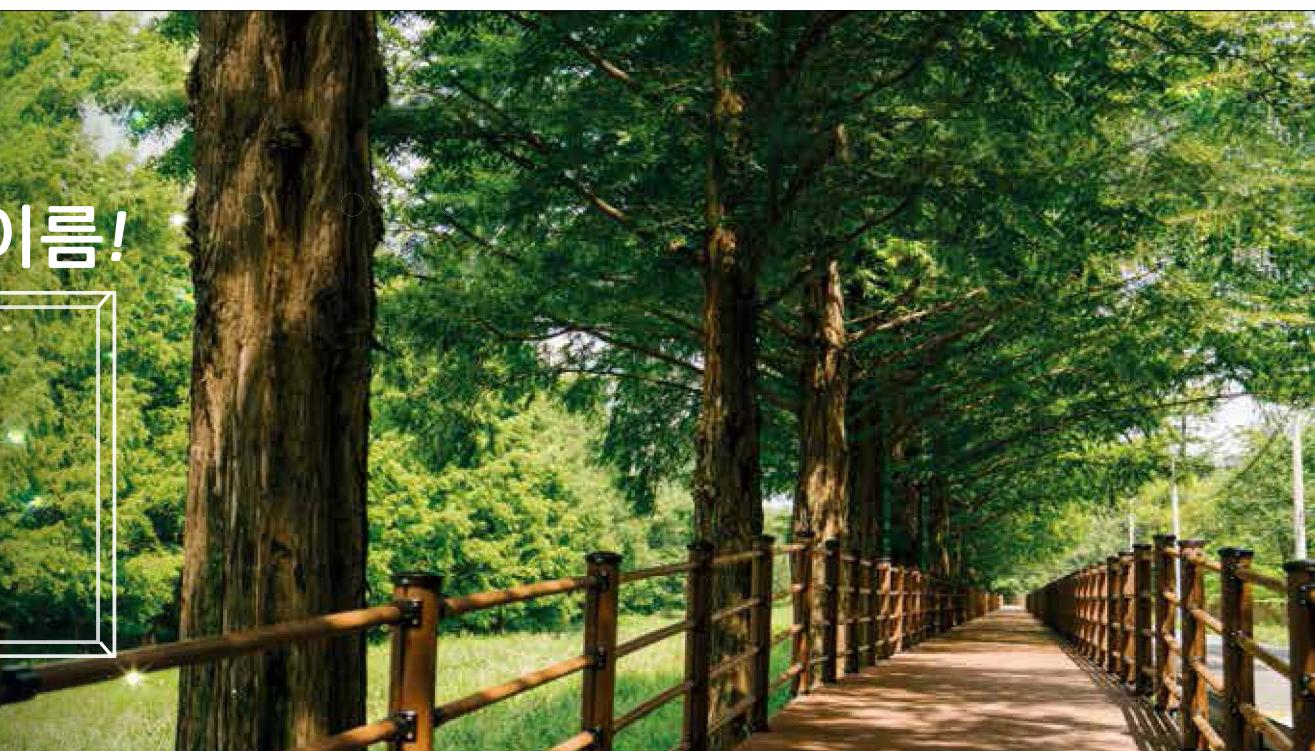
을 잡고 패션프루트 재배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정립을 통해 틈새작목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소흘읍 소흘로 73에 위치한 꿀비자연농원(조종억·김성미 / 010-2442-9717)은 2016년 도시농업 교육농장으로 개장한 이후로 매년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의 체험객을 대상으로 6월 감자캐기를 시작으로 7~8월 옥수수 따기, 9~10월 땅콩·고구마·단호박 등 다양한 채소와 과실의 가을걷이까지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2017년부터는 패션프루트 재배를 시작하여 8~9월에 패션프루트 수확체험도 가능하며, 지금은 꿀비백향과 농원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꿀비자연농원에서는 패션프루트를 농장직거래로 판매하면서 로컬푸드점에 납품까지 하고 있다. 올여름 패션프루트 생과의 청량하고 싱그러운 맛과 향기를 포천에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

광릉숲 둘레길의 새로운 이름!

유네스코
국립수목원 길



슬기로운 화현면 생활

주민생활 혁신에 앞장서는 '꽃고을 스마트 심부름 마켓'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쾌거

화현면 꽃고을 스마트 심부름마켓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 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화제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꽃고을 스마트 심부름 마켓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혁신사례 444개 중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심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된 꽃고을 스마트 심부름마켓은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지역 맞춤형 주민 서비스다.

화현면은 2020년 3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지역이다. 높은 노인인구비 대비 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커다. 화현면은 이러한 주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심부름마켓을 시작했다.

'꽃고을 스마트 심부름 마켓'의 서비스



▲ 포천시 화현면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으로 스마트 심부름 마켓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심부름마켓에서 하는 일은 일상용품 구매대행과 외부 이동수단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차량 이동 지원, 무료 도시락 배달, 목욕지원 등이다. 시행초기에는 구매대행요청이 많았으나 현재는 이동지원 서비스 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다 많은 주민이 더욱 편리하게 심부름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현면은 2018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해 '스마트심부름마켓'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주민에게 보급, 활용 중이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앱을 통해 올린 지원요청은 스마트심부름마켓을 운영하는 '스스로 해결단' 회원들의 스마트폰으로 즉시 일람이 발송되므로 신속히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화로 요청된 내용은 담당자가 대신 스마트 심부름마켓 시스템에 올려 스스로 해결단에 전달한다.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스스로 해결단'

지역주민과 공무원,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스로 해결단'은 화현면 13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자원봉사자들이다. 스스로 해결단 단원들은 각자 생업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마을 어

르신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출동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야간이나 주말 등, 스스로 해결단이 바로 대응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지원요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현면 파출소와 연계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동작감시를 통한 어르신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해 장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안부확인을 한다. 사각없이 촘촘한 복지 실현이라는 평을 받는 이유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하루 이용 건

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 늘 친절히 도움을 주는 스스로 해결단 단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도움 요청을 주저하는 주민도 있다. 화현면은 누구나 마음 편히 스마트심부름마



켓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등을 다니며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더불어 스마트 심부름 마켓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지소 이용 어르신의 겸진일을 놓치지 않게 방문데이터를 살피고 스스로 해결단원이 먼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대일 매칭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꽃고을 스마트 심부름 마켓은 혁신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면서 "타 자치단체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공유해 더 많은 주민이 우리 지역의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영북면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활약에 주민 '방긋'

홀로 하기 힘든 일에 행복마을관리소 출동

영화에 어벤져스가 있다면 영북면에는 '지킴이'가 있다. 지킴이는 환경정화부터 지역순찰, 등하교 서비스와 안전귀가서비스, 취약계층 지원까지 영북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주민의 온갖 어려움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포천시 영북면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의 이야기다.

영북 주민을 위한 영북면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포천죽협 영북지점 2층에 자리 잡은 영북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 1월 29일에 개소했다. 내부에는 독서와 학습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아름누리'와 주민의 정을 돋독히 할 '공유카페',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의논할 수 있는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영북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각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동 드릴 등 편리하지만 가격이 비싸 구비해두기 부담스러운 각종 공구 역시 하루 8시간 한도 내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행복마을관리소의 대표 서비스 중 하나인 '안심귀가서비스'는 밤길, 늦은 귀가가 두려운 여성을 위한 서비스다. 버스에서 하차하기 2~30분 전에 미리 영북면 행복마을관리소로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행복마을지킴이가 약속장소에 나와서 집앞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준다. 항상 2명 이상의 행복마을지킴이가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주는 데다 약속장소에도 예약 시간보다 일찍 나가 기다려 주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은 밤늦은 귀가에도 안심할 수 있다.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집 수리 서비스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간단해 보이는 일도 연세가 많으신 홀몸노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전기와 설비 등에 능숙한 행복마을지킴이들은 전구를 가는 일부터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가전제품 수리까지 다양한 집 수리를 대신 해 줄 뿐 아니라 말동무가 되어 마음을 위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등 '내 가족'처럼 살뜰히 살피며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다.

주민에 더 가까이, 주민과 함께

한편, 코로나19로 대민접촉에 제한이 생긴 현재는 지역 안전순찰과 환경정화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대부분이 수십 년 전부터 영북면에서 살고있는 지역주민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다. 안전에 취약한 곳이 어디인지, 쉽게 지저분해지는 곳이 어디인지 기민하게 파악하고



▲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신 속한 처리가 가능해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행복마을지킴이가 내 지역에 함께 사는 이웃이기 때문에 무언가 부탁하기에 부담도 덜하다.

그야말로 주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 서비스다. 지킴이들의 애정어린 지역활동에 감명받아 환경정화에 동참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향후 특화사업으로서 화재방지를 위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취약계층에 배포

해 큰 사고를 예방하고 쓰레기가 많은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등의 계도 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한 분은 "우리 지킴이들은 주민 봉사를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도움이 필요한 영북 주민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북면 행복마을관리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031-535-0030 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향토유적 제30호 태봉 석조물

왕실 자손 출산 ‘아기태’ 봉안 ‘태실’… 석조물로 성동리에 흔적만

포천 영중면에서 산정호수 방향으로 43번 국도를 따라 흐르는 영천변에 작은 언덕이 있다. 이곳에는 포천 향토유적 제30호 태봉 석조물이 모여 있다. 안내문에는 익종 태대의 유물 일부, 금주리 태실에서 가져온 유물 그리고 태실과 관계없는 다른 석조물이 섞여 있다고 할 뿐 어떤 이유로 석조물이 이곳으로 모이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다.

태실(胎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를 봉안하던 곳을 말하며 봉안하는 과정을 태봉(胎封)이라 부른다. 지금까지 포천시에서 확인된 조선 왕실의 태실은 만세교리 태봉, 무봉리 태봉, 이곳의 태봉 석조물 등이 있다.

태봉 석조물만 원래 위치를 벗어나 있어 그 정확한 위치가 궁금했다. 그래서 태봉 석조물 복원을 주도했던 자연보호 포천시 협의회 이응수 님의 도움을 얻어 성동리로 향했다.

성동2리 마을회관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불무산이 남북으로 길게 산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그 왼쪽 끝은 성동리 산성이며 가운데가 태봉 자리다. 오늘날 성동2리 향교골의 작은 봉우리다. 봉우리에 올라가 보니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조선 시대에는 엄격하게 관리

가 되었을 것이지만 일제강점기 때 거치면서 도굴을 피하지 못했고 석조물조차 사방으로 빼돌려졌다. 원래 10개의 석주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4개만 남아 있던 것을 산정리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2개를 찾아서 갖다 놓았다고 한다.

태봉 석조물의 주인인 익종은 누구일까? 익종은 조선 제23대 순조의 장남 효명세자다. 불과 22살의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왕위에 오르지 못해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올라 익종으로 추존되었다. <익종 대왕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에는 태실을 조성했던 절차와 태실 가봉의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효명세자가 태어난 뒤에는 태실 조성 후보지로 포천, 춘천, 보은 등이 언급되었다가 포천으로 확정되었고 그 날짜는 1809년 12월 21일 오시(午時)였다.

효명세자가 1830년 5월 6일에 죽자 태실 가봉 절차 논의가 시작되는데 1836년 3월 21일 진시(辰時)로 결정되었다. 태실은 아기 태실과 가봉 태실로 구분되는바, 아기 태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만든 태실이고 가봉 태실은 왕위에 오른 후 추가로 화려한 석물을 올려 치장한 태실을 말한다. 그래서 준비된 태실 관련 석물을 배치하고 금표를 세우게 되는데 익종은 임금의 아버지로 추존되었



▲ 포천 향토유적 제30호 태봉 석조물

기애 화려한 석물이 배치되지 않았을까.

효명세자 즉 익종의 석조물은 입구에 하마비가 있다. 하마비는 보통 궁궐이나 왕릉, 향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이곳의 태실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또 태실은 태실 가봉비와 장태석물로 나누는데 태봉 석조물은 귀부만 있을 뿐 귀부 위에 있어야 할 태실비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익종대왕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를 통해 태실비의 앞면에 익종대왕태실, 뒷면에 날짜가 새겨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장태석물의 경우 난간석이나 석주, 상석 등이 질서 없이 흩어져 보존되고 있을 뿐이다.

영중면 주민자치센터와 자연보호 포천시 협의회에서 일하던 이 응수 씨는 5년 전부터 태실의 복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 경기도 문화유산과에서 그동안 문화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조선 왕실의 태봉을 보호 관리하기로 밝혔다. (경향신문 2020년 1월 9일 자)

잔존하고 있는 태실은 도 문화재 지정이나 승격 등을 통해 보호하고 위치가 불확실한 곳은 추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의 태봉 석조물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시민기자 서상경

* 태봉 석조물 정보

- 위치 :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640-1 (호국로 3140)
- 지정번호 : 포천시 향토유적 제30호
- 지정날짜 : 1986년 4월 9일
- 태봉답사 : 성동리 불무산 아래 서울우유 뒷산 봉우리 약 300m 올라감 (아무 흔적 없음)
- 교통편 : 1386번(의정부역~산정호수) 시내버스 성동2리에서 하차.

* 참조문헌 :

- <조선 왕실의 안태와 태실 관련 의궤>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포천지명 유래 2

소흘읍(蘇屹邑)

송우리[松隅里]

본래 솔모루라는 우리말 이름이었으나 한자로 송우(松隅)라고 하였다. 솔모루란 송림이 무성한 산이나 모퉁이에 위치했다는 뜻이다.

솔모루[松隅里]

이 마을 서북쪽에 태봉산이 있어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송림(松林)이 무성하였으며, 이 무성한 송림 모퉁이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솔모루’라 한다는 것이다.

이동교리[二東橋里]

본래 포천군 내소면의 지역으로서, 이동교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수내리를 병합하여 이동교리라 하고 소흘면에 편입시켰다. 이동교리란 포천군의 남북으로 흐르는 한내(포천천)의 다리 중 두번째 동교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동교리는 ‘동다리’라고 하였으며, 큰비가 오면 동동 뜨는 다리라는 뜻으로 전해졌다.

이곡리[梨谷里]

본래는 포천군 외소면의 지역인데,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므로 배울, 배곡 또는 주곡, 이곡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 때 송현리를 병합하여 이곡리라 하고 소흘면에 편입시켰다. 이 마을은 원래 마을의 지형이 배(舟)를 닮았기 때문에 배골(舟谷)이라고 하였는데, 뒤에 이곡(梨谷)으로 바뀌었다. 조선 철종 때 왕이 광릉 세조대왕 능에 참배하러 가던 길에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꽃이 피는 계절이라마을에는 배꽃이 만발하였다. 마을의 봄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왕이 마을의 이름을 물었다. 주위에서 배골(舟谷)이라 대답하니, 그보다는 배골(梨谷)이라 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고 하였다. 이후부터 이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고모리[古毛里]

효부 고씨 할머니의 묘 앞이라 하여 묘앞, 고되 앞 또는 고모동이라 하였다.

출처: 포천문화원 홈페이지

포토

경기미 우수생산지, 포천

포천시는 지난 5월, 포천쌀(경기미) 우수생산단지에 농기계를 전달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모내기 시연회를 가졌다. 포천시는 2017~2019년에 연속으로 경기미 우수생산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으며, 올해에는 2,973ha를 쌀 재배 목표로 삼고 고품질 쌀 적정생산으로 농가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2년 모내기 사진



포천쌀 우수 생산단지에 농기계 전달 및 모내기 시연

도시재생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핵심

어울림센터 II 2021년 착공

빈점포 토지 매입 완료 설계단계

로컬푸드 매장 커뮤니티 카페 조성

청년 창업자 지원센터 공유주방도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가 지난 5월 4일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II 건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단위 사업의 시행주체를 정하고, 기관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II 건립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내 ‘FORTUNE 길막 STREET’ 사업과 함께 상권 및 특화골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2월 신읍동 일원 빈점포 및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석면 해체 및 제거, 슬레이트 철거 처리공사를 완료하여 설계단계에 있다. 이 곳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카페 및 공유주방, 스포츠센터 등의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국비 34억원, 도비 6억원, 시비 9억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어울림센터 내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경제조직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됐다.

1층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장터 설치를 통해 지역 내 소농인들의 질 좋은 농산물을 지역 내 상인, 주민, 관광객들이 안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커뮤니티 카페 조성을 통해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2층에는 지역 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및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천 첼린지센터(스타트업 지원센터)가 조성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센터, 공유주방이 조성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2층에 위치할 공유주방은 말 그대로 주방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주방설비는 물론 옹기종기 둘러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미니오븐 등 요리를 위한 도구들과 기본적인 양념들이 준비된다.

기념일에 서로 요리 해주고 싶은 연인, 자취는 하지만 친구들을 초대하기에는 협소한 주방을 가진 청년들이나, 부녀회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반찬봉사, 창업을 위해

신읍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계



조리공간이 필요한 창업자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질 계획으로 멋진 곳에서 요리하는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 티비에서 본 쿡방을 따라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 공간을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다. 공유주방은 시간제로 운영될 계획으로 금액부담도 크지

않다.

3층 공간은 포천시 청년 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연장’과 ‘딴따라공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지역 내 청년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될 ‘딴따라공장’은 청년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버스킹아지트로 운영되고, 지역축제 프로그램 공연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위와 연계하여 ‘다목적 공연장’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공연 프로그램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워크숍 및 강연 등 문화·여가 활동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해당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II는 2021년 하반기 내 준공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빈집 철거비용 지원 대상자 모집

포천시는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오랜기간 방치되어왔던 빈집 및 노후주택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중 첫 번째로 추진 중인 빈집철거사업은 1년 이상 무단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 중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신읍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구역계 하단 첨부) 내 위치한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철거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빈집철거 후 철거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호당 최대 1,000만원 까지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철거비용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부담이 발생한다. 보조금 지원의 경우 대상지 내 위치한 빈집 2호로 제한되어있어 빈집정비 계획이 있다면 신청을 서둘러 지원금을 받길 권장한다.

해당 지원은 빈집철거 후 3년 간 무상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건축주 및 지주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빈집 철거 후 임시 주차장 제공 및 쌈지공원을 조성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목적으로 활용된다.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포천시청 친환경도시재생과(031-538-2476) 또는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031-538-4792)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시는 빈집철거사업을 시작으로 ‘집수리지원사업’ 및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신읍동 활성화지역 내 노후한 주거환경 및 골목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첫 발원은 우리 마을 청소부터!!

‘기분 좋은 하루!’ 환경정화 활동은 지역주민이 신읍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환경정화 활동은 월 4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시작된다. 골목골목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처음 활동이 시작될 때는 새마을부녀회, 여성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관단체와 협업해 구역을 나눠 거리를 청소했다. 그 결과 거리가 깨끗해지고 쓰레기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자연을 소재로 한 친근하고 밝은 벽화를 그리고,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기도 했다.

한 신읍동 주민은 “예쁜 그림과 꽃을 보니 골목길을 다니는 내내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읍동 주민협의체는 깨끗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아름다운 신읍동 만들기를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발행인 포천시장 편집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대표전화 (031) 538-2061

www.pocheon.go.kr

2020년 6월 제 444 호

운천리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 최종 선정 4억 확보

50년 침체 영북지역 일자리창출 공동체 활성화 향후 뉴딜사업 시동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20년 5월 21일(목) 영북면 운천리 지역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됐다.

‘분단의 아픔과 수복의 감동적 역사가 함께하는 굴울(구름내, 雲川)마을’이라는 사업명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평가발표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영북면 지역은 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총 4억 원(국비 2억원/도비 6천만원/시비 1억4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단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단위사업으로 시와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 할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시 영북면은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50년 동안 침체했던 도시활성화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영북면 운천리 지역은 ‘굴울’이 라는 옛 지명의 마을로 1950년에 6.25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분단과 수복이 반복된 지역으로 6.25전쟁 당시 독수리유격대와 소리봉부대가 활약하여 지켜낸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6.25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이루다가 1970년대 미군부대 이전으로 도시는 급격

히 쇠퇴하면서 지역발전이 멈췄다.
이에 포천시는 소규모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신청
해 전국 138곳의 지자체가 참여하
여 1.8대1의 경쟁률 속에서 선정
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은 영북면 지역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영북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지역현안을 분석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계획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분단과 수복된 유일한 도시라는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방향설정과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유기적인 통합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영북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미래상 및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 향후 뉴딜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사업구상은 분단과 수복의 감동적 역사를 품은 중심거점 도시 '굴울마을'이라는 비전을 통해 거점공간 재생과 지역경제 재생, 공동체 문화재생이어가는 문화콘텐츠

분단의 아픔과 수복의 감동적 역사가 함께하는 굴울마을

포천시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01,300㎡

38선

독수리유격대(수복선봉)
수리봉을 겨우다(호박교량)

소규모 포켓광장

수복의 영웅, 독수리유격대
「서바이벌 영북Y리그전」

골목탈방길(스토리길)

골목탈방길(중심가로)

울타리공동체 거점센터

소년소녀에게 이로운 봉사단
「돌봄유격대」

함께하는 굴울마을
「울타리공동체」

분단과 수복의 유일한 도시
「2개의 민간 유격대 활약」

~70년 미군부대 주둔지
「경제기여 군사도시」

미군부대 이전, 신도시 출현
「급격한 쇠퇴」

민관 자구노력 출발
「주민협, 사업추진협」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유허리 506-1 일원

▲ 영북면, 2020년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최종 선정

업을 추진한다

추진전략으로는 굴울마을 흥부자 만들기를 통한 거점공간 조성과 지역활력 뿐만 유격대 만들기를 통한 지역경제 재생, 함께하는 굴울마을, 움타리 공동체를 통한 마을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H/W사업인 운천리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굴울 마을 골목탐방길(소규모 가로정비, 골목스토리길 1억6,500만원)과 ▲소규모 포켓광장 조성(8,500만원), 그리고 ▲공동체활동거점센터 고모례관(7천만원)은 총지

한다. 그리고 S/W사업은 ▲‘수복의 영웅, 독수리유격대 서바이벌 영북Y리그전’ 프로그램 운영(4천만원) ▲‘소년소녀에게 이로는 봉사단, 돌봄유격대’ 프로그램 운영(3천만원) ▲마을소식지 발간(1천 400만원) ▲마을역사 아카이빙 전시홍보관 운영(1천600만원)으로 6월 내 국비와 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성과지표로는 거점공간 재생으로 거점공간수 2개소 확보와 지역경제재생으로 주민경제활동 조성 2개 그룹(인·아

상), 공동체문화재생으로 프로그램운영 참여자수 회당 20명 이상 참여(만족도 70%이상)로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목표를 세웠다.

포천시 관계자는 “영북면은 분단의 아픔과 수복의 감동적 역사가 함께한 마을이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발전을 하지 못한 지역이다. 이번 소규모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도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경험을 축적하여, 올 하반기에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도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